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과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Anxiety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박영애 · 김리진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동덕여대 여성사회교육원

Park, Young Yae · Kim, Lee- Ji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Dongduk Women's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anxiety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85 children between fifth and sixth grade ages and 579 middle school students. Their emotional competence was assessed by 'Korean Emotional Competence Scale (Kim et al., 2004),' and also their social adjustment was assessed by 'Social Anxiety Scale (Moon & Oh, 2002).' Th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the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using SP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hildren's and adolescents'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anxiety were relatively high. (2) Their emotional competence had a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SES, gender, and birth order. (3) Their social anxiety had a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SES, gender, and birth order. (4)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ir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anxiety. (5) A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social anxiety showed that approximately 11.3% variance could be explained by four emotional competence variables: 'self-expressiveness and assertion,'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emotion,' 'positive acceptance,' and 'collective consciousness.'

Key Words : Korean Emotional Competence, Social Anxiety, Children, Adolescen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발달시기상 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갑작스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회문화적 요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심리적, 환경적 변화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들은 내적인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자기가 속한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시기는 영유아기나 초기 아동기와는 달리 주변의 성인이나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원하게 되는 반면, 여전히 부모나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과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으므로 내적인 갈등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Erikson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자아정체성에 대한 답을 추구하며(Mussen, Conger, & Kagan, 1963),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속한 가정, 학교,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미래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때때로 혼란에 빠져 불안해지기도 하면서 극단적으로는 비행 행동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어떻게 자신을 수용하고, 인지하며, 이해하는지, 또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Kim, Lee- Jin
Tel: 018-220-7986, Fax: 02) 706-7986
E-mail: chum123@hanmail.net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불안이란 스스로 적응할 수 없다고 자신이 느끼는 일에 직면했을 때의 느낌이고(오경자, 1989), 다가오는 위협한 성장 또는 상황을 생각할 때 발생하는 두려움(한국청소년개발원, 1993)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불안은 걱정, 자의식, 정서적 고통을 포함하기도 하고(Leary & Koxalski, 1995; Schlenker & Leary, 1982),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과 생리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현상(Beidel, Turner, & Dancu, 1985)의 의미로 사용된다. DSM-IV에 따르면 극단적인 사회불안을 보이는 경우는 사회공포증이라고 진단하는데, 진단기준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 즉 개인이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타인에 의해 주시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개인들은 자신들이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런 방식으로 행동할까봐(또는 불안 증상을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장애”라고 정의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대인불안이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으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억제하거나 회피한다면, 개인의 사회적 기능은 손상을 받게 된다.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으로 확고한 것이 없고 성장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절망 속에서 자아를 추구하는 불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불안은 이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진로탐색,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처럼 불안의 개념은 정신병리학이나 인간의 부적응 행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인다.

불안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정신역동적 측면에서는 억압된 내적 욕구가 의식적인 세계로 드러날 때 발생하는 반응의 변형이라고 한다. 그 외의 이론에서는 주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느낄때 불안한 감정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도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불안에는 민족과 사회적 구조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차이(Zimbardo, 1977)와 사회인구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타고난 신체적·인지적 자원 등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서구사회의 아동 및 청소년보다 동양문화권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불안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시형, 1993).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불

안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 및 청소년들은 불안을 많이 나타냈고(이진환과 김태희, 2000), 여아보다는 남아들이 대인관계에서 방어책략과 주장 책략을 더 많이 보이며,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석재, 1996).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 자신이 가진 사회적 기술을 타인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더라도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자신을 가치없다고 느끼는 것은 대인관계의 불안을 높일 수 있다(Clark & Arkowitz, 1975). 또한 아동기에 형성된 사회적인 평가에 대한 예민한 반응은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아동을 고립시키게 되는데 이는 사회성을 덜 강조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다(Bruch, Himberg, Berger, & Collins, 1989). 또한, 개인이 가지는 부정적인 정서는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Clark & Watson, 1991; Barlow, Chopita, & Turovsky, 1996).

한편, 정서적유능성이란 특정한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판단하여 특정한 행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보다 성공적이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aarni, 1999). 즉 정서적 유능성은 사회문화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조절하여 대인관계를 잘 유지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Saarni(1999)는 정서적유능성의 하위요인으로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정서어휘, 감정이입, 정서표현, 정서적 의사소통, 정서적 자아효능감을 구성하였다. 정서적유능성은 높은 인지적 능력이나 대인관계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청소년기가 되어야 나타난다고 했다.

정서적으로 유능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행동장애나 비행 등의 부적응행동의 발생이 적다. 반면 부모나 교사, 또래와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거나 갈등을 경험한 학령기 아동은 학업부진이나 비행, 성격상의 문제를 갖는다(박소혜, 1995).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아동은 특정한 사건을 경험할 때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한 대처능력을 보이므로(Saarni, 1990), 타인과의 관계에서 덜 불안해하며 효율적으로 관계를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유능한 아동 및 청소년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이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과 자신을 위한 목적을 추구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Harter, 1988).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불우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기 효율성, 자기통제, 자존감 등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Luster, 1990), 자신의 환경을 극도로 비판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표현하게 되면, 정신불열증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병리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차지연, 1999).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이 그들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그에 앞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유능성과 사회불안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부차적인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하는 불안한 정신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아동의 건강한 정신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정서적유능성은 차이가 있는가?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사회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4.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은 관계가 있는가?
5. 정서적유능성이 사회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내와 수도권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400명과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600명으로 총 1000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100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6부를 제외하고 96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동이 평정하는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 검사이다.

1) 정서적유능성

본 연구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김경은, 김리진, 박영애, 김주후(2004)가 개발한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척도'였다. 본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정서인지·이해', '긍정적수용감', '공동체의식', '정서표현적정성', '배려성', '자기표현·주장'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

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39.80%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반분신뢰도는 .71이고, 전체 내적합치도는 .68이다(김경은 외 3인, 2004). 정서적유능성 척도의 문항은 각각 1점에서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사회불안

본 연구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문혜신, 오경자(2002)가 Beidel, Turner와 Morris(1996)의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 척도와 LaGreca와 Stone(1993)의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 연구를 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였다. 본 척도는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회피행동 및 사고',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의 5요인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축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50.76%였다. 각 하위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79에서 .92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혜신과 오경자, 2002). 사회불안 척도의 문항은 각각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2004년 4월 14, 15일에 걸쳐 서울 시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 1, 2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문항의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시내와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400명과 중학교 1, 2, 3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총 1000명에게 실시한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3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64부를 분석하였다. 담임교사를 사전에 방문하여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의 지도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작성된 질문지는 담임교사가 즉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집단에 따른 사회불안과 정서적유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하위요인 중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할 수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의 일반적 인 경향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의 일반적 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표 1>.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은 2.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서인지·이해, 긍정적수용감, 공동체의식, 정서표현적정성, 배려성 영역은 모두 2.45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서인지·이해 영역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표현·주장 영역은 1.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불안은 2.22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 영역은 2.17에서 2.42로 보통 이상 정도였으나, 회피 및 사고 영역은 1.88로 낮게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유능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출생순위, 사회경제학적 수준)

<표 1>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의 전반적인 경향

문항	평균	표준편차
정서인지·이해	2.92	.38
긍정적수용감	2.73	.67
공동체의식	2.45	.55
정서표현 적정성	2.52	.31
배려성	2.82	.52
자기표현·주장	1.90	.64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2.65	.23
수행불안	2.30	.74
부정적평가에 대한 두려움	2.42	.74
회피 행동 및 사고	1.88	.61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2.17	.76
비주장성	2.37	.71
사회불안	2.22	.55

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유능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정서적유능성 하위변인 중 '배려성'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을 더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의 출생순위에 따라 정서적유능성 하위 변인 중 '정서인지·이해'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장자가 이후에 출생한 형제자매보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전체 정서적유능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더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서적유능성 하위변인 중 '정서인지·이해' 영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았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유능성

변수	구분	정서인지·이해		긍정적 수용감		공동체의식		정서표현 적정성		배려성		자기표현·주장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	2.92	.39	2.76	.73	2.48	.63	2.53	.32	2.77	.52	1.93	.65	2.64	.24
	여	2.91	.37	2.70	.62	2.42	.45	2.51	.30	2.87	.51	1.88	.63	2.65	.23
	F	.468		1.506		1.633		.784		-3.094***		1.168		-.582	
출생순위	장자	2.95	.40	2.76	.62	2.43	.44	2.51	.31	2.83	.51	1.87	.63	2.66	.24
	이외	2.88	.36	2.70	.73	2.47	.65	2.52	.31	2.82	.52	1.94	.65	2.64	.23
	F	2.610**		1.153		-1.194		-.312		.107		-1.607		1.153	
사회경제적 수준	상	3.00b	.38	2.87	.65	2.51	1.00	2.54	.32	2.81	.58	1.95	.65	2.70b	.21
	중	2.91ab	.37	2.72	.67	2.44	.43	2.51	.31	2.83	.51	1.90	.64	2.64ab	.23
	하	2.80a	.57	2.65	.82	2.32	.53	2.57	.40	2.78	.48	1.84	.74	2.57a	.34
F	4.583*		3.003		1.982		.782		.192		.586		4.806**		

*p < .05 **p < .01 ***p < .001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불안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출생순위, 사회경제학적 수준)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불안은 다음과 같다<표 3>.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 하위변인 중 '회피행동 및 사고' 영역과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회피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의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불안 하위변인 중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장자가 이후에 출생한 형제자매보다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전체 사회불안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불안 하위변인 중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영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불안,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간의 관계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4>.

정서적유능성 하위요인과 사회불안 하위요인 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총점과 사회불안 총점은 비교적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r=-.223^{***}$). 즉 정서적으로 유능할수록 사회불안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정서적유능성 총점은 모든 사회불안 하위영역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불안 총점은 정서적유능성 하위변인 중 '자기표현·주장($r=-.237^{***}$)', '긍정적수용감($r=-.181^{***}$)', 그리고 '정서인지·이해($r=-.177^{***}$)' 영역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불안

구분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회피행동 및 사고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		사회불안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	2.34	.73	2.40	.69	1.96	.62	2.22	.77	2.41	.72	2.25	.54
	여	2.26	.75	2.44	.78	1.80	.59	2.12	.75	2.34	.71	2.18	.57
	F	1.620		-.942		3.892***		2.094*		1.398		1.694	
출생순위	장자	2.28	.74	2.41	.70	1.88	.61	2.21	.77	2.37	.69	2.22	.55
	아외	2.33	.74	2.42	.77	1.88	.59	2.11	.75	2.37	.74	2.21	.55
	F	-1.086		-.065		-.027		2.038*		-.145		.189	
사회경제적 수준	상	2.17a	.76	2.28a	.75	1.79	.60	2.04a	.83	2.27	.71	2.10 a	.58
	중	2.31ab	.73	2.43ab	.73	1.88	.60	2.17ab	.75	2.38	.72	2.22ab	.54
	하	2.55	.86	2.66b	.77	2.05	.64	2.44b	.73	2.49	.61	2.43b	.60
	F	4.033*		3.952*		2.762		3.942*		1.716		5.147**	

*p < .05 **p < .01 ***p < .001

<표 4>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간의 상관관계

사회불안	정서적유능성	정서인지·이해	긍정적 수용감	공동체의식	정서표현 적정성	배려성	자기표현·주장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수행 불안		-.197***	-.191***	.016	-.028	.062	-.160***	-.21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065	-.134***	-.063	-.089**	-.039	-.314***	-.177***
회피행동 및 사고		-.185***	-.164***	-.031	-.032	-.049	-.111**	-.207***
낮선것에 대한 두려움		-.126***	-.112**	.055	-.011	.008	-.135***	-.137***
비주장성		-.106**	-.120***	.038	-.014	-.044	-.168***	-.146***
사회불안		-.177***	-.181***	-.004	-.057	-.008	-.237***	-.223***

*p < .05 **p < .01 ***p < .001

참조) '배려성', '자기표현·주장'요인의 문항들은 배려성 부족과 위축, 억제성향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한국적 정서적유능성의 전체 점수 합산을 위해 역코딩하였다.

을 보였다.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류 상황에서 소심하거나 위축되고,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서적유능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표 5>.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유능성은 사회불안을 약 11.3%를 설명해준다. 정서적유능성의 6개 하위변인 중 사회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자기표현·주장(4.8%)'이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인지·이해(4.3%)', '긍정적수용감(1.3%)' 그리고 '공동체의식(0.9%)' 순으로 4개의 영역이었다.

<표 5>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정서적유능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사회불안		
	b	β	ΔR^2
자기표현·주장	2.593	-.222***	.048
정서인지·이해	3.536	-.211***	.043
긍정적수용감	3.612	-.125***	.013
공동체의식	3.424	.104**	.009
R^2		.117	
수정된 R^2		.113	
F값		26.316***	

*p < .05 **p < .01 ***p < .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의 사회인구학적 관련 변인(성별, 출생순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와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부차적인 목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불안한 정신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능력을 분석하고 그러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 평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의 인지적 측면인 '정서인지·이해' 영역이 가장 높고, 그에 비해, 기질적 요인의 의존도가

높은 '자기표현·주장'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기표현·주장' 능력이 다른 정서적 능력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회 문화적 특성과 그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양육방식의 영향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서구화되고 있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생활태도나 양육행동은 은연중에 유교적 영향을 받아 성장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주의깊게 살피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소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 점수가 낮게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 이해될 수 있다. 타인의 평가나 낮은 환경에 대한 지나친 의식의 반응으로 불안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함에 있어 소극적일 수 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출생순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서적유능성을 살펴보면 우선, 정서적 유능성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성차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 변인 중에서는 '배려성' 영역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을 더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남아보다 타인과 공감하거나 감정이입을 더 잘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Hoffman, 1977). 남아는 여아보다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회피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대인불안이 더 높아 대인관계에서 방어적 책략과 주장적 책략을 더 많이 보이며, 미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석재, 1996)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장자인 아동 및 청소년은 장자가 아닌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유능성 중 '정서인지·이해' 영역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능력 중 특히 인지·사고와 관련이 깊은 영역이다. 이는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보다 장자에게 성취지향적인 직접적인 지적 자극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더 발달한다는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Shaffer, 2000). 마지막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류층 가정의 아동이 중류층 가정의 아동보다 인지수준 낮고 행동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Luster, 1990).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출생순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불안을 살펴보면, 사회불안의 하위 영역인 '회피행동 및 사고' 영역과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영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아가 여아보다 회피행동을 더 많이 하고,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Castenada, McCandless와 Palermo(1956)은 불안 수준에서의 남아와

여아간 차이는 단순히 성별에 따른 차이이기보다는 문화적 배경이나 부모가 남아와 여아를 대하는 양육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불안 하위변인 중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영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장자가 이후에 출생한 형제자매보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 부모가 첫째아이를 양육하며 대하는 태도나 행동은 둘째, 셋째를 대할 때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아이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기대한 만큼, 첫째아이를 보호하고자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부모의 과잉보호나 과잉 애정이 첫째아이를 보다 순종적이고 소극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 및 청소년들은 전반적인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낮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확인된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특히 사회불안은 대인관계에서 확인되는 자기존중감의 유지나 자신의 표현방법과도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Clark & Arkowitz, 1975). 사회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낯선 수행과제에 대한 불안과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유능할수록 사회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지하고, 인지된 정서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표현할수록 불안은 낮아졌다. 정서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므로, 자신의 정서를 평가하고 상황에 적응하며 대처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서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자신의 정서나 주변의 상황을 평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질 수 있다(Saarni, 1990).

넷째,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회불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유능성 요인은 자기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영역이었다. 그 외에 '정서 인지·이해', '긍정적수용감'과 '공동체의식'이 영향을 미쳤다. 약한 정도이지만 공동체의식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한국사회는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는 문화이므로,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나 주장을 표현하는 것 못지 않게 조직에서의 조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 및 사회불안의

일부요인들은 성별, 출생순위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여아보다는 남아들이 '회피행동 및 사고'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첫째아이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불안수준과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유능성이 높을수록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불안 수준은 낮아지며, 특히 '수행불안'과 '회피행동 및 사고'가 낮아지고, 사회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유능성 중 특히 '자기표현주장', '긍정적수용감', 그리고 '정서인지·이해' 능력이 높았다.

셋째, '자기표현·주장'과 '정서인지·이해'능력이 아동 및 청소년의 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이라는 점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발달을 돕는 교육에 있어 역점을 두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언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출생순위,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정서적 유능성과 사회불안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유교문화권의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사회에서는 가족구조에 따른 부모자녀관계나 주변 환경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사회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이 속한 가정 및 학교, 그 외의 환경적 특성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능력을 높이며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현재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에 관련된 연구나 불안과 같은 부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한국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서, 한국적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와 비교문화적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사회불안, 아동, 청소년

참 고 문 헌

김경은·김리진·박영애·김주후(2004).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척도개발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 포스터 발

- 표논문.
- 문혜신·오경자(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1(2), 429-443.
- 박소혜(1995).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와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경자(1989). 청소년 비행의 평가. 1989년도 추계 학술대회.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 이석재(1996). 자기제시 척략 척도의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73-483.
- 이시형(1993). 사회공포증. 서울: 일조각.
- 이진환·김태희(2000). 불안과 우울의 예언변인들에 대한 탐색연구(II): 잠재적 불안과 우울집단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32, 91-100.
- 차지연(1999). 가족내 표현된 정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부모가 알아야할 청소년기. 서울: 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 서울: 상조사.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rlow, B. H., Chopita, B. F., & Turosky, J. (1996). *Fear Panic Anxiety and Disorders of Emotion*. In D. A. Hop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erspectives on Anxiety Panic & Fear(Bol. 432. pp. 251-228). Lincoln University of Nevraska Press.
- Beidel, D. C., Turner, S. M., & Dancu, C. V. (1985). Physiologic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109-117.
-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 (1996). A new inventory to assess childhood social anxiety and phobia: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7, 73-79.
-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1), 57-65.
- Castenada, A., McCandless, B. R., & Palermo, D. S. (1956). The Children's Form of the Manifest Anxiety Scale. *Child*, 27, 317-326.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36, 211-221.
- Clark, D. A., & Watson, D. (1991). Tripartite model of anxiety and depression: Psychiatric evidence and taxonomic impl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16-336.
- Harter, S. (1988). *Manual for the Self 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Denver: University of Denver.
- Hoffman, L. W. (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2, 644-657.
- LaGreca, A. M., & Stone,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7-27.
- Leary, M. R., & Kowalski, R. M.(1995). *Social anxiety*. New York: Guilford Press.
- Luster, T. (1990). Adjustment of child born to teenage mothers: the contribution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393-404.
- Mussen, D. H., Conger, J. J., & Kogan, J. (1963). *Child Development Personality*. NY: Harper & Row publisher.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rgrated. In R. A. Thompson (Ed.), *Social Development*(pp. 115-182). Lo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arni, C. (1999). A Skill based model of Emotional compet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Albuquerque, NM, April 15-18, 1999).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ntin*. 92, 641-668.
- Shaffer, D. R., (2000).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4th). Belmont: Wadsworth.
- Zimbardo, P. G. (1977). *Shyness "What is, what to do about i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2005. 12. 31 접수; 2005. 02. 11 채택)